

양국 도시 간 국제우호교류 협약을 위한

공무국외방문 결과 보고서

[중국 연길시 인대위 초청 공식 방문]

- 방문기간: 2019. 9. 6.(금) ~ 9. 9.(월) / 3박 4일
- 방문도시: 연길시, 안도현 이도백하진, 용정시, 도문시
- 방문인원: 10명(의원 6, 사무국 4명)
- 방문내용
 - 강릉시의회와 연길시인대위 간 국제우호교류 협력 관계 구축

2019. 9.



강릉시의회

목 차

1. 방 문 개 요 1
2. 방 문 일 정 2
3. 방문도시현황 3
4. 주요 방문지 및 내용 5
5. 주요 시사점 및 특이사항 19

I 공무국외방문 개요

- 방문지역: 중국 연길시
- 방문목적: 강릉시의회와 연길시인대위 간 국제우호교류 협력 관계 구축
- 방문기간: 2019. 9. 6. ~ 2019. 9. 9. (3박 4일)
- 방문인원: 10명
 - 의 원: 6명
 - 수행직원: 4명
- 보고서 작성자: 산업위원회 김용남 의원
- 방문자 인적사항

연번	성명	직책 및 직위	확인
1	최선근	의장	최선근
2	김기영	운영위원장	김기영
3	배용주	산업위원장	배용주
4	김용남	의원	김용남
5	김미랑	의원	김미랑
6	정광민	의원	정광민
7	배항규	운영전문위원	배항규
8	김동근	산업전문위원	김동근
9	김진혁	주무관	김진혁
10	우원훈	주무관	우원훈

Ⅱ 방문 일정

일자	일정내용
9/6 (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출발 → 중국 연길시 도착 ● 연길시 인대위 주재 환영 오찬 ● 연길시 박물관 참관 ● 연길시 인대위와 좌담회(공식일정) ● 연길시 인대위와 공식 환영만찬
9/7 (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도현 이도백하로 이동 ● 이도백하 주변 시가지 탐방
9/8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정시로 이동 ● 비암산 일송정 일원 방문 ● 운동주 생가 방문 ● 도문시 인근 두만강 탐방
9/9 (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연길시 출발 → 인천 도착(강릉이동)

Ⅲ 방문도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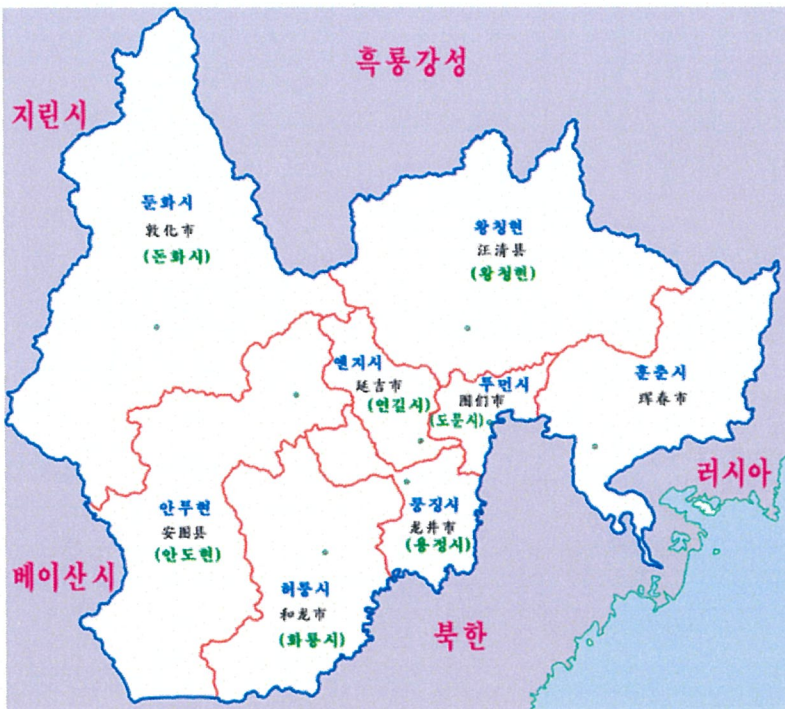
○ 연길시 현황

- 연길시[延吉市 / Yánjí Shì]
- 면적: 1748.3km² (강릉의 약 1.7배)
- 인구: 약 65만명(한민족 비율 48%)



구분	내 용
지 리	백두산 북쪽의 산간 분지인 연길 분지에 위치해 있으며, 서쪽을 제외한 남쪽과 동쪽, 북쪽은 산에 둘러싸여 있음.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은 돈화, 북동쪽은 왕청현, 동쪽은 도문, 남쪽에서 남서쪽은 용정, 서쪽은 안도와 접함
역 사	고대에는 고조선, 부여와 북옥저, 고구려, 발해의 영역
행정구역	6가도 3진
교 통	연길 국제공항, 연길역
교 육	연변대학(국가중점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 연변 제1고등학교(조선족), 연변 제2고등학교(한족)
경 제	농업·공업의 비중은 적어지고 서비스업이 90%
특이사항	중국법으로 연길의 모든 간판은 한글과 중국어 이중표기 의무화

연길시는 1952년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성립과 더불어 자치주의 수부 도시로 지정되었으며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이다. 백두산 북쪽 기슭, 자치주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돈화시, 동북쪽으로 왕청현, 동쪽으로 도문시, 남쪽으로 용정시, 서쪽으로 안도현과 접하고 있다.



고대에는 부여와 북옥저, 고구려, 발해의 영역이었고, 지금의 돈화시에 있던 동모산(東牟山)은 발해 건국의 출발지였다. 이 지역은 발해의 중심지였던 만큼 현재도 발해 관련 유적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1949년에 발견된 정혜공주묘 고분군 과 1980년에 정효공주묘가 발견된 화룡시의 용두산 고분군 등이 있다.

1860년대부터 조선 함경도 사람들이 두만강을 건너 이주하기 시작했다. 1881년, 연변 지역의 조선인은 약 1만 명이었으며, 한국 전쟁 직후 1954년에 총인구 85만 4천 명 중 조선인은 53만 명으로 전체의 62%였다.

IV 주요 방문지 및 내용

1. 연변박물관 [延邊博物館]

연변 박물관은 중국 조선족의 문화 및 이주 역사를 살필 수 있는 유물과 고고학 유물을 전시하기 위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1960년 4월 조선족 민속전시관으로 시작하여 1980년대 조선족 민속박물관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대표 소장품은 12폭의 <발해 정해공주묘의 벽화>다.

박물관에서는 조선족의 이주 역사를 3기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었다. 1기에는 농사를 위한 이주, 2기는 일제 압제를 피한 애국지사들의 이주, 3기는 일본 만주국의 강제 이주이다.

다양한 농기구, 장터 풍경 및 전통 혼례 장면 등 전시된 자료를 통해 당시 이주 조선족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었다.

[연변박물관 사진자료]



2. 연길시 인대위 공식 예방

- 일 시: 2019. 9. 6.(금) 15:30
- 장 소: 연길시 시청사 322호
- 주요내용: 환담 및 강릉시의회와 연길시인대위 간 국제 우호교류 협력
- 환담요지
 -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주임 / 자오이홍[赵义弘]
 - 연길시를 방문해주신 강릉시의회 방문단 여러분을 환영함
 - 중국의 인대위는 한국의 지방의회와는 조금 다름. 정부의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됨
 - 10월에 원주에서 열리는 GTI 국제 무역 투자 박람회에 관심이 있음. 동북아 국제협력의 초석이 되었으면 함
 - 강릉 인근의 양양공항을 통해 연길과의 직항 노선이 취항되었으면 함
 - 강릉시의회와의 지속적인 교류로 양 기관의 우호 증진을 기원함
 - 강릉시의회 의장 / 최선근
 - 강릉시의회 방문단을 환영해주신 인대위 자오이홍 주임님과 연길시 귀정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조선족자치주의 명칭에 걸맞게 대부분 지역민들이 한국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없고, 거리에 한글 간판이 정겹게 느껴짐
- 독립운동의 근거지인 연변 지역은 한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서려 있는 곳임
- 2018년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어가고 있음. 2022년 베이징올림픽의 성공개최를 기원함
- 연변 노인체육회와 강릉시 체육회 간 노인체육교류를 진행하고 있고 주문진 청년회의소에서 해마다 연변의 소학교에 전산용품을 지원하고 있음
- 문화, 예술, 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늘려 나가면 좋겠음
-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우정을 나누고 동반성장하는 관계로 발전하길 희망함

[인대위 환담 사진자료]







3. 용정시 비암산 일송정[毘岩山 一松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용정시 서쪽으로 약 3km 떨어진 비암산 정상에 있는 정자로 원래 산 정상에 소나무가 한 그루 있었는데, 그 모양이 정자를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바로 일송정이다.

일제강점기에 용정시는 독립 운동가들이 활동하던 곳이었으며, 산 정상에 우뚝 선 소나무가 독립 의식을 고취하던 상징이었다. 윤해영의 노랫말에 조두남이 곡을 붙인 가곡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 푸른 솔이 바로 그 소나무였으나, 1938년 일제는 우리민족의 민족혼을 말살하고자 이 소나무를 고사시켰다.

1991년 용정시 당국은 한국의 각계 인사들의 후원으로 옛 자리에 소나무를 다시 심어 복원했으며, 그 위치에 정자를 세웠다.(자료사진 참고)

정자에 오르면 용정시 일대의 만주 벌판이 한눈에 들어오며, 용정시 반대편으로는 해란강과 평강평야가 펼쳐져 있다.

[용정시 비암산 일원 사진자료]





4. 운동주 생가[尹東柱生家]

1900년경 조부 윤하현이 지은 남향의 기와집으로, 기와를 엮은 열 칸과 서쪽에 자리한 동향의 사랑채가 있는 전통적인 구조이다. 운동주 가족이 이사 간 후 다른 사람에게 팔렸다가 1981년 허물어졌고, 1994년 8월 연변대학 조선연구센터의 주선으로 복원되었다.

운동주가 유년기에 공부한 방과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시를 쓰던 방이 당시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외숙인 김약연이 세운 명동교회, 운동주 기념비, 운동주가 1939년 9월에 쓴 시 <자화상>에 나온 우물, 명동학교 유적 등이 운동주 생가 주변에 함께 있다.

[운동주 생가 사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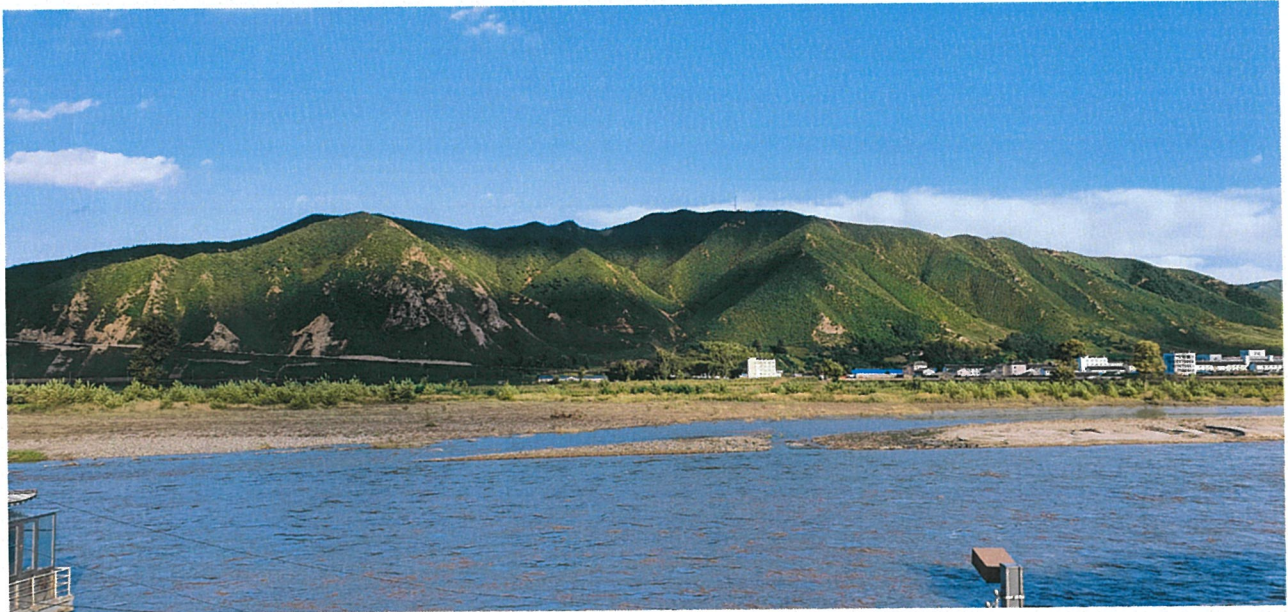
5. 두만강 [豆滿江]

두만강은 길이 547.8km, 유역면적 32,920km²로 한국·중국·러시아의 국경을 흐른다.

유역 일대 산림의 94%가 성숙림으로 상류지역은 침엽수림, 중·하류지역은 혼합림으로 되어 있다. 두만강 대부분의 지류에 저수지가 건설되어 있어 수량 변화와 홍수가 적다.

상류의 부근은 철광석, 중류의 회령군에서 하류의 아오지에 걸쳐 갈탄산지가 있어 한국의 대표적인 지하자원 지대를 이룬다. 또한 임야지가 전유역의 94%를 차지하므로 임야 자원도 풍부하다.

[도문시 두만강 사진자료]



V 주요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연변조선족 자치주의 수부 도시인 연길의 도시 규모에 놀랐고 시민들의 한국어 능력에 또 한 번 놀랐음
- 일송정의 유원지 및 유리로 만들어진 구름다리 관광지
지의 강릉시 관내 접목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음
-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주 거점인 간도로 대표되는 연길과 용정 등 연변지역의 문화재를 탐방하고, 최근 이슈가 된 봉오동전투 영화의 실제 격전지를 보면서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사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 조상들의 희생에 감사함을 느낌
- 고구려, 발해의 유적지 및 간도, 백두산 지역의 문화재 등이 중국의 집요한 동북공정으로 인해 외부인의 접근이 차단되거나 제한되어있는 상황이었고, 우리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역사 왜곡이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보였음
- 한민족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계몽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음

- 산림이 풍부하고 비슷한 인구수와 한민족 문화권이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연길과 강릉의 항구적인 발전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 연길인민대표회의 관계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강릉시 의회와의 지속적인 국제 교류와 협력을 약속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